

 금융위원회		보 도 참 고 자 료						
보도		20. 6. 19.(금) 10:30		배포		20. 6. 19.(금)		
책 임 자	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	담 당 자			
	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진선영(02-2100-2920)						
	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이민우(044-203-4321)						
			김명지 사무관(02-2100-2865)					
			전동연 사무관(02-2100-2936)					
			박일철 서기관(044-203-4321)					

**제 목 : 정부-정책금융기관-완성차업체가 「자동차 부품산업
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」을 통해, 부품업계의 위기
극복과 미래차 준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.**

- ◇ 6.19.(금) 경제부총리주재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「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」을 의결
- ◇ 정부 - 정책금융기관 - 완성차 업체가 함께 마련한 재원을 통해, 2조원+ α의 자금이 자동차 부품업계 취약기업에 중점 공급될 예정

1 추진배경

- 자동차 부품산업은 설비투자가 많고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, 신용도가 낮은 취약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.
 - 특히,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정비용 누적으로 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산업 생태계의 자생적인 복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그동안, 정부는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 등 업계,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.
 - 이번 대책은 지난 6.15일 열린 간담회*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.

* 「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」(6.15일, 금융위·산업부 및 업계 참여)

2 대책 주요 내용

◇ 2조원 + α 규모인 6개의 대출·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 지원 확대를 통해 부품업계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

- 이번 대책은 자동차 부품산업 상황과 업계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,
-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견기업과 충·저신용등급 부품업체 지원에 집중하면서,
 - 취약업체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감과 업계 상생을 위해 정부와 완성차업체 등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.

① 신보는 총 3,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.

- 2,700억원은 보증과 산은 대출이 연계된 「**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**」을 통해, 300억원은 「**프로젝트 공동보증**」의 형태로 지원합니다.
- 특히,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 지원 방안으로서,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서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·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.
- 현재 협의중인 완성차업체와 지자체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면 공급규모는 3,000억원보다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.

② 산은·수은·기은·캠코는 1.65조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합니다.

- 우선, 정책금융기관과 완성차업체가 함께 조성한 「**동반성장펀드**」를 통해 산·기은에서 각각 1,750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집니다.
-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·중견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나,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.

-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이나 납품거래 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.
-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, 캠프에서 3,000억원 규모의 「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(PDF)」를 신설하였으며,
- 산은의 「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」을 통해서도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할 예정입니다.

③ 해외법인 대출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요청과 중견기업들의 만기 연장 지원 건의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.

- 수은에서는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하여 부품업체의 해외공장 등이 지닌 「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」을 추진할 예정이며,
-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「시중은행 만기연장」을 5대 시중은행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시행하겠습니다.

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이번 대책을 통하여 중견기업과 취약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, 이미 운영 중인 P-CBO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망이 완성되었습니다.
- 이를 통해 완성차업체-자동차 부품업체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(Supply chain)이 안정화되고, 중견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체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.

- 빠른 시일 내, 참여기관 간 세부조건을 확정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,

※ 세부 시행일정은 하단 표 참조

- 앞으로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, 완성차 업체는 부품업체들이 한시적인 위기 극복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.

2조 + α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					
상품명		기관	세부내용	공급규모	시행시기
①	상생 특별보증 패키지	산은·신보	특례보증 + 우대금리 대출	2,700억원	6월말
②	프로젝트 공동보증	신보	특정 생산 프로젝트 참여업체 공동 보증	300억원	7월중
③	동반성장펀드	산은·기은	완성차-정책금융기관 예치금 활용 대출	3,500억원	6월말
④	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	캠코	매출채권 담보부 대출	3,000억원	6월말 (조성)
⑤	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	산은	납품거래 실적 협력업체 대출	1조원	즉시
⑥	해외법인 자금지원	수은	부품업체 해외법인 해외자산 담보대출	요청시	
⑦	만기연장	5대 은행	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기존 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	즉시	

<별첨>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